『청비록』에 나타나는 ‘情/眞情’ 개념의 함의 및 그 비평의 양상

장 진 엽*

국문초록

본고는 李德懋의 『淸脾錄』에서 ‘情/眞情’ 개념이 사용된 맥락을 검토하고 그와 관련한 비평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청비록』에 나타나는 ‘情’ 개념의 함의를 살펴보았다. 이덕무는 이광석의 시를 ‘淸眞’하다고 평하고, 독서를 많이 하여 품격이 높아져서 정이 농후해진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의 시에서 벗을 향한 애뜻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덕무는 이어서 ‘情勝’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시를 인용하고, 겉으로는 친절하면서 속으로는 남을 해치려는 자들에 대해 ‘조그마한 정도 없는 자들’이라고 비판한다. ‘情勝’한 사람이란 벗에 대한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며, 표리부동한 이들은 타인에 대한 정이 없는 사람이다. 즉, 이덕무에게 ‘정’이란 ‘관계’에서의 ‘진실성’을 핵심으로 하는 개념인 것이다. 이러한 정은 사람 사이의 진솔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바탕으로서, 이러한 맥락에서 ‘정’은 곧 ‘진정’으로 표현된다.

다음으로 『청비록』의 시평에서 ‘정/진정’ 개념이 어떤 양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덕무는 『청비록』에서 동시대의 청나라 문인 엄성, 반정균, 육비, 이조원이 조선인들과 교류한 일을 소개하였다. 특히 이들이 이별에 임하여 애통해하는 모습을 생생히 묘사하고, 여기에서 ‘眞情’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덕무는 『耳目口書』에서 진정의 발로와 꾸며낸 감정은 저절로 구별되며, 칠정 가운데 슬픔이 가장 속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였다. 중국 문인들에 대한 글에서 이별의 정을 부각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관계에서의 진정의 발로는 ‘言外之味’의 詩境을 창출하는 경지로 이어진다. 진실하고 가식 없는 마음이 가득하여 자기도 모르게 그 감정이 말에 담기게 되고, 그 뜻이 말 바깥으로 넘쳐나서 무한한 여운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진정의 유로가 자연스럽게 함축미의 창출로 이어진다는 생각인데, 이덕무 시평의 특색이 확인되는 부분이다.

眞情과 天真을 중시하는 관점은 公安派와 원매의 性靈說에 바탕을 둔 것이며, 언외지미의 함축성을 추구하는 것은 왕사정의 神韻說과 통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운용 방식은 이덕무의 독자적인 발상에 의한 것이 많으며, 본고의 분석 역시 그러한 사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이덕무, 청비록, 비평, 情, 眞情, 言外之味

목 차

I. 들어가며	III. ‘情/眞情’ 개념의 사용 맥락과 시평의 양상
II. 이덕무의 詩評에서의 ‘情’의 개념	IV. 나가며

* 성신여자대학교 한문교육과 조교수 / apricity@sungshin.ac.kr

I. 들어가며

李德懋(1741~1793)는 18세기 후반의 새로운 지성을 대표하는 학자이자 문인의 한 명이다. 일찍이 북학과 및 연암그룹의 일원으로 주목을 받았거니와, 근래에는 그가 이룩한 여러 방면에서의 업적이 두루 조망을 받으며 이 시기의 문학 및 문화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이덕무의 문학론 및 비평 활동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성과가 꾸준히 제출되고 있다. 이 방면의 연구를 살펴보면 시론을 비롯한 이덕무의 문학론 일반을 대상으로 한 연구,¹⁾ 이덕무의 평점 비평 활동에 주목하여 산문 비평가로서의 면모를 부각한 연구,²⁾ 시 비평 저작인 『청비록』의 성격 및 비평 양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³⁾ 등으로 대략 구분할 수 있다. 그 외 중국 문예사조와의 영향 관계나 중국 문학의 수용 양상을 밝힌 연구들⁴⁾도 있다. 또, 북학과 및 백담시파 문인들을 다룬 많은 연구들에서도 이덕무의 문학론을 언급하였다. 각 범주에 속하는 연구들은 긴밀한 연관을 갖고 이덕무의 문학론 및 비평 활동의 전모를 드러내는 데 기여해 왔다.

본고는 『淸脾錄』의 시 비평에 나타나는 ‘情’ 개념의 함의와 시평에의 적용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情’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感情’을 뜻하는데, 이덕무는 이를 ‘眞’과 결합하여 ‘眞情’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쓴다.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마음 그 자체는 ‘진실한’ 것이기에 그것이 곧 ‘진정’으로 표현된 것이다. ‘정’은 또한 ‘天真’ 및 ‘眞實’ 개념과도 연관이 있다. 이덕무의 문학론이 진실의 확립, 또는 천진의 구현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은 기존 연구들에서 여러 차례 논의되어왔다. 근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이덕무는 진실에 바탕을 두어 현상의 본질을 드러내고, 진실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창작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 간주

- 1) 유재일, 『이덕무의 시문학 연구』, 태학사, 1998, 63~94쪽(Ⅲ. 문예이론의 양상과 의미); 오수경, 「雅亭 李德懋의 詩論과 ‘朝鮮風’의 성격」, 『한국한문학연구』 9, 한국한문학회, 1987; 금동현, 「李德懋 文學理論의 思想的 土臺와 그 意味」, 『태동고전연구』 16,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9; 부은아, 「이덕무 문학론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정대림, 『한국고전비평사-조선후기편-』, 태학사, 2001, 442~508쪽(제6절 이덕무); 이학당, 「李德懋의 文學 批評에 關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안대희, 「이덕무의 신시 창작론과 창작의 실제」, 재단법인 실시학사 편, 『청장관 이덕무 연구』, 학자원, 2019.
- 2) 강민구, 「『풍석고협집』을 통해 본 18세기 후반 문학 비평 연구(I)」, 『동방한문학』 25, 동방한문학회, 2003; 강민구, 「『풍석고협집』을 통해 본 18세기 후반 문학 비평 연구(II)」, 『동방한문학』 29, 동방한문학회, 2005; 김대중, 「『풍석고협집』의 평어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박희병, 「『중복소선』의 평어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38, 민족문학사학회, 2008; 김경, 「이덕무 산문비평연구: 『중복소선』, 풍석고협집소재 비평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박희병, 『연암과 선굴당의 대화: 『중복소선』의 평점비평연구』, 돌베개, 2010; 이수영, 「이덕무의 산문 비평의식 연구: 『풍석고협집』, 『중복소선』, 『엄계집』 소재 미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김경, 「이덕무의 청성잡기 평어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33, 동양한문학회, 2011; 권정원, 「이덕무 평점비평의 성립 배경에 대한 고찰」, 『동방한문학』 67, 동방한문학회, 2016.
- 3) 김영, 「『淸脾錄』의 詩批評樣相」, 송재소 외, 『李朝後期 漢文學의 再照明』, 창작과비평사, 1983; 박수천, 「『淸脾錄』의 詩話論의 考察」, 『석당논총』 18, 동아대학교부설 석당전통문화연구원, 1992; 정숙인, 「『淸脾錄』을 통해 본 이덕무의 批評樣相」, 『어문연구』 27: 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9; 최육현, 「雅亭 李德懋 『淸脾錄』의 평어 연구」, 『인문사회과학논문집』 36,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5; 전영실, 「李德懋 『淸脾錄』에 나타난 中國詩와 詩人에 대한 批評樣相 考察」, 『한중언어문화연구』 25, 한국중국언어문화연구회, 2011.
- 4) 권정원, 「李德懋의 公安派 批評理論의 受容樣相」, 『한문교육연구』 25, 한국한문교육학회, 2005가 대표적이다. 권정원은 이덕무 문학과 중국 문예사조와 관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그 대부분은 창작에 있어서의 영향 관계를 논한 것이다. 그 외 김기완, 「조선후기의 금·원대시 수용 연구-이덕무의 청비록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52, 대동한문학회, 2017이 있다.

하여 창작에 임하였고, 실제 비평에 적용하였다.”⁵⁾고 요약하고 있다. 연관된 개념인 ‘천진’은 “작가의 측면에서는 인위적·가식적이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본성(喜悲) 또는 천성을, 작가와 작품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작가가 작품을 창작하고자 할 때의 가장 우수한 창작기제로서의 靈感·靈機를, 작품의 측면에서는 작가의 자연스런 영감과 영기가 작품 속에서 지나친 기교 없이 자연스레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⁶⁾라는 설명이 참조할 만하다. 요컨대 이덕무의 문학관에서 ‘정’은 곧 ‘진정’이 되며, ‘진정의 토로’는 ‘진실’을 확립하고 ‘천진’을 구현하는 바탕이 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⁷⁾

그렇다면 이와 같은 ‘情’ 개념은 본격적인 비평서인 『청비록』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활용되고 있을까. 이덕무가 문학 창작의 기본 방침으로서 ‘진정’의 발로를 중시했다면 구체적인 비평에 있어서도 그러한 관점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진정을 중시한 이덕무의 문학론 그 자체를 설명하거나, 그러한 사고가 실제 창작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그의 비평에서 이러한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조명되지 못했다. 실제로 『청비록』에서 ‘情’이나 ‘眞情’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기사를 살펴보면 기존의 설명에서 부각되지 않은 특징적인 면이 발견된다. 본문에서는 먼저 『청비록』에 나타나는 ‘情/眞情’의 개념을 검토하고, 이어서 구체적인 시평에서 그러한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청비록』을 주요 텍스트로 삼되, 『耳目求心書』 등에 수록된 관련 논의를 참고하고자 한다.

II. 이덕무의 詩評에서의 ‘情’의 개념

다음은 『청비록』에서 이덕무의 조카이면서 知己였던 心溪 李光錫의 시에 대해 논평한 부분이다.

심계가 일찍이 <가을의 회포>라는 시를 지었다.

눈에 비친 밝은 달과 마음 맞는 사람	眼中明月意中人
이 둘이 내 인생 억겁의 인연이네.	兩介吾生曠劫因
차고 기울고 만나고 헤어지는 것 하나하나 헤아리다가	細數盈虛離合地

5) 안대회, 앞의 글, 43쪽.

6) 금동현, 앞의 글, 29쪽.

7) 한편 ‘진정’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한 진실한 생각을 뜻하기도 한다. 그는 『耳目求心書』에서 李光錫의 글에 대하여 “자네의 문장은 결점이 없지는 않지만, 나는 그것에 진정이 흘러나오는 것을 아껴서 매번 칭찬하는 것이다.[君之文章, 不無疵處, 余愛其眞情流出, 每多之也.]”라고 평했다. “나는 정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에 힘쓰므로 흥중의 일이 아닌 것이 없다[余以寫出直情爲務, 無非胸臆間事耳.]”라는 자신의 문장론을 말한 후에, 이광석의 글을 이렇게 평한 것이다. 그러자 이광석이 달을 소재로 지은 자신의 시구 - “골짜기와 하늘엔 멀리 밤이 깊고 / 별과 달이 정신을 움직이네. [峽天遙夜邃, 星月動精神.]” - 를 읊어 보였다. 이에 대해 이덕무는 “이것이 어찌 진정이 아니겠는가. 기이하고 기이하다!!此豈非眞情乎? 奇哉奇哉!”라고 감탄한다. 여기서 ‘진정’이란 다른 사람들의 글에 나오는 意思를 답습한 것이 아닌 ‘바로 그 순간 보고 들은 것’에서 일어난 소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진정이 발로된 시는 ‘솔’의 미감을 갖게 된다. 진부하지 않고 새롭다는 뜻이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진정’은 본고의 논의와는 그 범주를 조금 달리하며, 이덕무의 작품에 나타나는 참신성이나 시어의 혁신과 관련하여 논할 만한 부분이다.

한평생에 온통 정신을 소모했네.

百年都是送精神

인듯 보면 심계는 냉담한 사람 같은데 그 詩詞가 이처럼 맑고 진실하니 독서를 해서 품격이 높아진 자는 정도 매우 농후해짐을 비로소 알겠다.⁸⁾

심계는 평소에는 차분하고 감정 표현이 적은 사람이었던 듯하다. 그러나 이덕무는 그의 시가 '맑고 진실하다[淸眞]'는 데서 그가 정이 풍부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독서를 열심히 하여 인품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정이 농후해졌다는 것이 이덕무의 생각이다. 사실 정이 농후하다는 것은 소위 '아녀자'들의 한 특성으로 운위되는 것이지, 남성 문인에 대한 칭찬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嬰處'를 문학적 이상으로 삼은 이덕무에게 '풍부한 정감'이란 시인의 자질로는 최상의 것이 될 수 있다. 독서를 통해 그러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 관점 역시 독특하다. 어린아이와 처녀는 어찌 보면 '無知'로 인한 순수함을 드러내는 존재인데, 글을 읽어서 역설적으로 그들과 같이 풍부한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진심을 담은 고인의 글이 그 사람의 품격을 높여주고, 그럼으로써 진실한 감정을 갖게 해줄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위 시의 어떤 면에서 이덕무는 시인의 '情甚濃至'함을 읽어냈을까. 이덕무는 이 작품에 대해 "詩詞가 淸眞하다"고 평하고 있다. 시에서 화자는 밝은 달과 마음 맞는 사람 이 둘이 자신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고 하였다. 밝은 달 아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그려보는 것, 세속의 온갖 것들을 제쳐두고 달과 벗에 마음을 의탁하는 것은 '맑음'이다. 달이 차고 기우는 것, 그리고 뜻 맞는 사람들과 만났다가 헤어지는 일들을 헤아리느라 정신을 소모했다고 하였다. 말로만 좋아한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마음을 쓴 것이다. 이것이 '진실함'이다. '맑음'이 시의 풍격에 대한 평이라면 '진실함'은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다. 애뜻한 마음이 문면에 가득하기에 그를 두고 정이 깊은 사람이라 한 것이다.

위 논평에 이어 이덕무는 자신의 시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내가 일찍이 이런 시를 지었다.

정 많은 사람 찾기 얼마나 어려운가

情勝人何難

한가할 때 손꼽아 세어보니

閑中試屈指

선배 중엔 현천옹(元重擧)이요

先輩玄川翁

친척 중엔 추월자라네.

吾宗秋月子

심계의 다른 호가 추월현이다. 내가 많이 보아왔는데, 세상에서 이른바 친근하게 말을 하여 좋아할 만하고 지나치게 공손한 자들은 모두 면전에서 사람을 속이고 웃음 속에 칼을 품고 있다. 이런 자들은 피해야 하며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되니, 진실로 조그마한 정도 없는 자들이다.⁹⁾

8) 『靑莊館全書』 卷35, 《淸脾錄(四)》, 「心溪秋懷詩」. “心溪嘗有秋懷詩曰: ‘眼中明月意中人, 兩介吾生曠劫因. 細數盈虛離合地, 百年都是送精神.’ 泛看心溪, 似是冷淡者, 而其詩詞淸眞如此, 始知讀書而品高者, 情甚濃至.”

9) “余嘗有詩曰: ‘情勝人何難, 閑中試屈指. 先輩玄川翁, 吾宗秋月子.’ 心溪一號秋月軒. 余見多矣, 世所謂昵昵緒語, 可愛足恭者, 皆當面欺人, 笑中藏刀, 可避而不可親, 眞無半箇情者.”

이덕무는 위 시에서 ‘情勝한 사람을 얻기 어렵다고 말한다. ‘情勝’은 ‘정이 많다, 풍부하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勝’은, ‘才勝’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다른 측면보다 그 부분이 두드러진다는 의미이다. ‘情勝’을 이러한 방식으로 쓴 것은 이덕무의 글 외에는 찾기 힘들다. 대개는 『近思錄』에 나온 “欲動情勝”의 맥락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한 정이 ~보다 낫다~情勝~’는 구조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이덕무는 인물의 특징으로서 ‘情勝’이라는 표현을 썼다. ‘才勝’이라는 표현은 재주가 뛰어나서 덕이 없다는 문맥에서 주로 쓰이는데, 이덕무의 ‘情勝’은 그러한 부정적인 함의가 없다.

『청비록』에서는 타인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지닌 것을 정이 많다고 표현하고 있다. 정이 많다는 것은 본래 다정다감하고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말인데, 비록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벗에 대한 깊은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을 情勝하다고 한 것이다. 앞서 인용한 이광석의 시에서 이덕무는 벗을 향한 간곡한 정을 느끼고 있다. 이어서 인용한 이덕무 자신의 시는 『雅亭遺稿』에 수록된 「絶句二十二首」의 제14수인데, 이 작품의 제15수에서도 같은 뜻을 펼치고 있다. 그 시에서는 “부드럽고 온화한 원약허요 / 활짝 퍼진 듯한 박차수다. / 사람 사랑하길 잃을까 겁내듯 하니 / 어찌 정 많은 사람들 아니라.[溫溫元若虛, 申申朴次修. 愛人如恐失, 豈非情勝流.]”라고 하였다. 원약허는 원중거의 아들 元有鑣이며, 次修는 朴齊家이다. 이들은 그 성품이 온화하고 화락하며, 사람을 사귄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잃을 것처럼 정성스럽고 간곡하게 대한다. 이들이 곧 ‘情勝’한 무리이다. 정이 풍부하다는 것은 곧 남과 사귄데 정성스러운 태도로 진심을 다한다는 말이다. 요컨대 ‘관계’에서의 ‘진실성’을 ‘정’의 핵심 요소로 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덕무는 겉으로는 친절하게 굴고 예의를 차리면서 속으로는 남을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있는 자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런 자들은 유교적 가치관에서 볼 때 ‘不正’하거나 ‘邪’하다고 할 만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덕무는 이들을 ‘眞無半箇情者’라고 하였다. 감정, 즉 상대와 공감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을 진실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논어』에서 “巧言令色, 鮮矣仁.”이라고 하였듯이 표리 부동과 허식은 유가에서 늘 경계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들이 정 없는 자들이기에 피해야 한다는 발상은 새롭다. 이광석은 겉으로는 냉담하여 사물에 무심한 듯하였으나 그 마음은 진실하여 벗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정 없는 사람들은 허식과 체면만을 중시하여 오히려 더 친절하고 공손하다. 그러나 그 행동은 가식이며, 이들은 半箇의 情도 없는 자들이다.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이러한 평가가 나온 것이다. 인간 사이의 윤리를 ‘道’가 아니라 ‘情’ 개념에 비추어 해석하는 방식이다.

‘情’이라는 글자는 이덕무의 시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많은 경우 ‘벗 사이의 진실한 정’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객지에서 우연히 친우인 尹可基를 만나서 쓴 시에서 “기쁘구나, 네가 꼭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으니 / 만나서 말 없는 건 정이 깊기 때문이네.[喜汝如從天上落, 相逢無語是深情.]”¹⁰⁾라고 했다. 徐常修의 집(觀軒)에 모여 지은 시에서는 “떨어져 있던 벗과 만나 정이 바야흐로 흡족하니 / 이야기 나누다 보니 대나무 발에 저녁달 나직하네.[朋仍間闊情方洽, 且話筠簾夕月低.]”¹¹⁾라고 했다. 같은 곳에서의 가을날 모임을 읊은 시에서는 “가느다란 향은 정 많은 벗을 머물게 하고 / 씨 많은 붉은 수박은 가시 많은 생선 같네.[細瓣香留情勝友,

10) 『靑莊館全書』 卷9, <雅亭遺稿(一)>, 「客中逢曾若 時曾若將遊白馬江」.

11) 『靑莊館全書』 卷9, <雅亭遺稿(一)>, 「觀軒夏集」.

紅犀瓜類骨多魚.]”¹²⁾라고 하였다. ‘情勝’이라는 표현이 이 시구에도 나타난다. 벗과 나누는 이야기는 ‘情話’라고 하였고,¹³⁾ 벗과 만나 마음속 情을 오롯이 쏟아낸다고 했다.¹⁴⁾ 이덕무 스스로도 ‘情勝’한 시인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본래 유가에서 교우의 이상은 ‘以文會友, 以友輔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18세기에 들어 연암그룹을 중심으로 전개된 友道論은 “同人的 結合에 의한 창조적 문학예술의 추구”이자 “同志의 結속에 의한 창조적 행동의 추구”를 모색한다¹⁵⁾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박지원, 박제가, 이덕무 등은 벗과의 관계를 가족보다 더 운명적인 관계로 여겼다.¹⁶⁾ 이덕무 역시 벗과 우정의 가치를 담은 시와 산문들을 남기고 있거니와, 『청비록』과 『이목구심서』에서도 벗 사이의 ‘情’을 특히 중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벗이란 서로의 진정을 드러내는 사이, 다른 말로 ‘天真’을 내보이는 관계임을 강조했다. 천진이란 사람 마음의 본연의 순수함을 뜻한다. 情勝한 인물을 찾는다는 말도 여기에 맥이 닿아 있다. 그러한 진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정승’한 인물이다.

『이목구심서』에 그러한 이덕무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대화가 있다. 벗 金希文이 과거시험에 얽매어서 양심을 잃게 되었음을 토로하자 이덕무는 “형의 말이 진정을 드러내었으니 매우 좋다.[兄言露出眞情, 甚善甚善.]”라고 하고, 그의 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다. 그러자 김희문은 “나는 형에게 진정을 모두 드러낸다. 어찌 마음을 속일 것이며 어찌 겸사가 있겠는가.[僕對兄畢露眞情, 豈欺心而亦有何謙辭.]”라고 답한다.¹⁷⁾ 가까운 벗 사이에서는 자신의 잘못된 점도 솔직히 털어놓고 질정을 구해야 한다. 또 예의를 차려가며 일부러 겸사를 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가 진정한 벗이다. 다음 시 역시 그러한 생각을 보여준다.

옛날 내가 그대의 시를 외우고	昔我誦君詩
천 년에 한 번 나올 사람으로 여겼지.	意謂千載人
종종 꿈속에서 보았는데	往往夢中覩
마치 세속의 티끌을 벗어난 듯했었지.	有如超俗塵
지금 문득 만나게 되었으니	伊今忽見之
손 붙잡고 天真을 드러내누나.	握手露天真
맑고 깨끗한 竹林의 취향이라	灑落竹林趣
만남에 의관도 갖추지 않노라.	相看不冠巾

12) 『靑莊館全書』 卷9, <雅亭遺稿(一)>, 「觀齋秋雨」.

13) “燈火留情話, 圖書看道心.”(『靑莊館全書』 卷3, <嬰處詩稿二>, 「留宿三湖」); “滿聽情話影隨齊, 漏日輝輝銀杏西.”(『靑莊館全書』 卷11, <雅亭遺稿三>, 「四月題心溪舍」); “秋堂悅情話, 鳴虫集蓼叢.”(『靑莊館全書』 卷2, <嬰處詩稿二>, 「重九日答贈內弟」) 등. 이덕무의 시에서 ‘情話’는 주로 혈연관계가 있는 이들과의 대화를 가리킨다. ‘歸去來辭’의 “悅親戚之情話”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이광석과 朴宗山은 이덕무의 친척이면서 벗이었다. 이덕무는 이들과의 대화를 ‘정화’라고 표현하곤 했다.

14) “與君值良宵, 把臂露心情.”(『靑莊館全書』 卷2, <嬰處詩稿二>, 「白良叔【東佐】宅清夜」)

15) 임형택, 「朴燕巖의 友情論과 倫理意識의 方向」, 『한국한문학회연구』 1, 한국한문학회, 1976, 106쪽.

16) 박수밀, 「소통의 맥락에서 본 조선후기 友道論의 양상」, 『동방한문학』 65, 동방한문학회, 2015, 210쪽.

17)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48, <耳目口心書(一)> 『청장관전서』 원문은 <한국문집총간> 수록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을 이용함. 번역은 모두 필자. 이하 저자명은 생략함.

그대 눈 백안이 되지 않았고	君目不爲白
내 눈썹도 찌푸러지지 않네.	我眉不爲嘖
원컨대 각자 마음을 다하여	願言各勗心
가난 잊고 느긋하게 살아가 보세.	逍遙以忘貧 ¹⁸⁾

먼저 시로써 상대를 알고서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연연하였고, 실제로 만나보니 더욱 뜻이 맞아 ‘천진’을 드러내는 사이가 되었다고 했다. 꾸밈없는 진솔한 내면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말이다. 두 사람은 속세를 벗어난 맑은 취향을 공유하였고, 세속의 예법을 따지지 않는다고 했다. 마지막 두 구는 고된 삶 속에서 고상한 지취를 잃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그리고 있다.

이덕무의 시평에서 ‘情’, 즉 ‘풍부한 감정’은 ‘벗 사이의 애뜻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라는 함의를 갖고 있다. 그는 이광석의 시를 ‘淸眞’하다고 평하고, 그가 독서를 통해 ‘情甚濃至’에 이르렀음을 알겠다고 하였다. 그의 시에서 이광석은 벗에 대한 정성스러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것이 곧 그가 정이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덕무는 이 평과 함께 ‘情勝’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뜻을 담은 자신의 시를 인용하고, 겉으로만 공손하고 속으로는 남을 배신하는 사람을 반 개의 정도 없는 사람이라며 비판했다. 관계에서의 진실성을 ‘情’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덕무는 특히 벗 사이의 정을 중시했으며, 참다운 벗이란 서로 꾸밈없는 진솔한 마음, 즉 眞情을 나누는 사이임을 강조했다. 사람 사이의 진솔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바탕을 ‘정’이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情은 곧 眞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情/眞情’ 개념이 구체적인 시평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III. ‘情/眞情’ 개념의 사용 맥락과 詩評의 양상

1. 만남과 이별 상황에서 드러나는 진실한 감정

이덕무는 『청비록』에서 중국의 문인들을 여럿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동시대 인물로서 洪大容과 교류했던 嚴誠, 潘庭筠, 陸飛 그리고 柳琴과 교류했던 李調元이 포함되어 있다. 홍대용과 金在行이 엄성, 반정균, 육비와 나는 우정은 이미 『乾淨衙筆談』과 『天涯知己書』를 통해 당대의 문인들에게 널리 회자되고 있었다. 이덕무는 『청비록』에서 그들이 나누는 시와 편지 등을 소개하고, 각 인물의 작품 중 뛰어난 것들을 인용하였다. 이 기사들에서는 작품 소개와 함께 이들과 조선 문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교유의 정도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하고 있다. 다음은 반정균에 대한 기사의 일부이다.

하루는 蘭公(반정균)과 力關(엄성)이 관소에 왔다. 장차 모임이 끝나 돌아가려는데, 난공이 말했다.

18) 『靑莊館全書』 卷2, <嬰處詩稿(二)>, 「酬東方子金錫汝【洪運】」.

“높으신 정의에 감복하여 눈물이 쏟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두 줄기 눈물을 흘리며 붓을 던지고 읊을 하더니 창황히 문밖으로 나갔다. 곁에서 보고 있던 이들이 모두 속으로 괴이하게 여겼다. 潭軒이 옷을 당겨 앉기를 청하자 역암이 말했다. “우리는 지극한 성정을 가진 이들인데, 아직 진정한 지기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헤어지게 되니 나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지며 마음이 아픕니다.” 담헌이 그들을 위해 玄擘으로 平調를 연주하였는데, 난공이 다시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 울었다. 담헌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아 한 곡만 연주하고 그쳤다. “동이의 토속 음악인지라 군자께서 번거롭게 들을 만하지 않겠군요.” 난공이 말했다. “천만다행으로 두 형을 만났는데 한 번 헤어지면 다시 만날 기약이 없으니 사람으로 하여금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역암이 養虛(김재행)의 시를 평하여 “감개한 평생 오늘 백발이 되었는데 / 이역에서 만나서 문득 청안이 되었네.”라는 구절은 진정 극히 모합니다. 또 ‘문 나서서 손 잡으니 이미 찬 별이 떴네.’라는 구는 천고의 절창으로, 王漁洋(王士禛) 선생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무어라고 하며 무릎을 쳤을지 모르겠군요.”라고 하였다. 양허가 또 ‘지는 해 밖 헤어지는 역정에 풀빛 푸른데 / 채찍 드리우고 만 리 길 혼자 떠나네.’라는 구를 내놓으니, 두 사람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권점을 치고 왈각 눈물을 쏟았다. 중국인들이 정이 진실하고 뜻이 지극함(情真意至)을 상상할 수 있다.¹⁹⁾

인용문에서는 이별의 상황에서 엄성이 몹시 슬퍼하고 반정균은 오열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일을 묘사하고 있다. 『간정동필담』을 보면 반정균은 홍대용이 금을 연주하자 오열을 참지 못하였고, 이에 홍대용이 그의 태도가 아녀자와 같음을 지적하며 감정을 절제할 것을 권하고 있다. 홍대용은 나중에 보낸 편지에서도 그의 지나친 태도를 탓하였다. 『간정동필담』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때 주변에서 지켜보던 자들 중에 놀라서 낯빛이 변하지 않은 자가 없었는데, 혹은 마음이 약해서 저런다고 하고 혹은 정이 많아 저런다고 하고 혹은 감개한 마음이 있는 선비라서 저런다고 하였다. 여러 말들이 똑같지 않았는데 요컨대 이것들을 곁하여 그렇게 된 것이리라.”²⁰⁾라고 적었다. 즉, 그들의 ‘눈물’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中正을 벗어난 과도한 감정 표현으로 본 것이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는 엄성의 『日下題襟集』을 통해 그들이 눈물을 흘린 것은 부사 金善行의 인사말을 들은 후이며,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들이 처한 안타까운 처지를 이해해준 부사의 말에 감격하였기 때문임을 밝혔다.²¹⁾ 그러나 조선의 문인들은 홍대용의 기록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속사정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이덕무는 『간정동필담』의 해당 장면을 축약하여 서술하였는데, 홍대용이 반정균을 나무란 부분은 생략하

19) 『靑莊館全書』卷34,《清脾錄(三)》,「潘秋庫」. “一日蘭公力闢到館, 將罷歸, 蘭公曰: ‘感服高誼, 令人涕泗.’ 卽灑下雙淚, 擲筆作揖, 蒼黃出門. 傍觀皆闐然嗟異. 湛軒挽衣請坐. 力闢曰: ‘弟等至性之人, 未遇真正知己. 今日臨歧, 不覺酸鼻傷心.’ 湛軒爲彈玄琴作平調, 蘭公又飲泣嗚咽, 湛軒亦懷不平, 一曲而止曰: ‘東夷土樂, 不足以煩君子之聽.’ 蘭公曰: ‘相逢兩兄萬幸之至, 而一別又無相見之期, 令人欲死.’ 力闢評養虛詩曰: ‘平生感慨頭今白, 異域逢迎眼忽青’, 真正妙極, 而‘出門搵手已寒星’之句, 千古絕唱, 使王漁洋先生在, 不知如何擊節.’ 養虛又出‘離亭草綠斜陽外, 萬里垂鞭獨去時’之句, 二君以指頭圈之, 汪然有淚. 中國人之情真意至, 槩可想也.

20) 洪大容, 『湛軒書』外集 卷2, 「乾淨衙筆談」. “是時, 上下傍觀, 莫不驚感動色. 或以爲心弱, 或以爲多情, 或以爲慷慨有心之士. 諸言不一, 而要之兼此而致然.”

21) 이철희, 「18세기 한중 지식인 교류와 天涯知己의 조건 - 洪大容의 『乾淨衙筆談』과 嚴誠의 『日下題襟集』의 대비적 고찰을 중심으로 -」, 『대동문화연구』 8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310~312쪽.

였다. 또, 엄성이 김재행의 시를 평한 말을 두 곳 인용하였다. 앞의 평은 『간정동필담』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뒤의 평은 원문과 조금 다르다. 앞서 눈물을 흘린 일은 2월 4일의 일이다. 김재행은 이후 16일에 엄성과 반정균을 만났는데, 일전에 보낸 김재행의 시에 대해서 두 사람이 평을 했다. 두 건의 평 모두 그날의 대화에서 나온 말이다. “離亭草綠斜陽外，萬里垂鞭獨去時。”에 대하여 엄성은 “기굴하고 시원하여 뱃속에 윤군이 가득하다[奇屈抗爽，滿腹輪困.]”라는 평을 써주었고, 이에 대해 김재행이 “형의 노실함으로써 반드시 지나친 칭찬은 하지 않을 텐데, 이 평은 너무 지나치다.[以兄老實，必不過譽，而此評則太過矣.]”라며 사양하였다. 그러자 엄성이 ‘老實’ 두 자에 권점을 치면서 “노실함이 지극하다[老實之極]”고 하였다. 그리고 대화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나 『청비록』에서는 김재행이 이별 장면을 묘사한 시구를 그 자리에서 내놓자 두 사람이 그 시구에 권점을 치고 눈물을 흘린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축약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앞의 평을 그대로 인용한 이유는 엄성이 왕사정을 언급한 부분에 주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이 시구에 대한 엄성의 평에 이덕무가 공감하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두 번째 평과 관련된 상황은 반정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기 위해²²⁾ 이별 장면으로 연출한 것으로 보인다. 마침 해당 시구가 이별 장면을 현재 시점에서 묘사한 것이므로 이별할 때의 북받치는 감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이별에 임해 보여준 두 사람의 모습에 대해 이덕무는 중국인들이 ‘정이 진실하고 뜻이 지극하다[情眞意至]’고 평하였다. 홍대용과 달리 이덕무는 그들의 눈물을 이상할 것 없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그려내고 있다. ‘中國人’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조선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기 어려움을 은연중에 말한 것이기도 하다.

『청비록』의 이 기사에서 엄성과 반정균은 짧은 시간이지만 지기를 맺은 이들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이별에 임해서는 감정을 속이지 않고 슬픔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진솔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위 기사의 전체 내용을 보면 반정균의 시를 소개하면서 『간정동필담』의 대화를 일부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간정동필담』에 수록된 많은 이야기 중에서 金尙憲의 시가 왕사정이 찬한 『感舊集』에 들어가 있다고 말한 부분, 그리고 위에 인용한 이별 장면의 대화만을 발췌, 요약하였다. ‘이별’이라는 상황에서 그들의 진정이 발로되었다는 것, 주고받은 시구들 역시 그러한 진정을 담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구성이다. 아마도 이덕무는 반정균의 과도한 감정 표출에 대한 홍대용의 꾸지람에 공감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덕무가 볼 때 이들 중국인은 풍부한 정을 가진 사람, 또 사람을 대할 때나 시를 쓸 때 진정을 담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이덕무는 또한 『淸脾錄(二)』 ‘嚴鐵橋’ 조에서 엄성의 여러 시 작품들을 소개하고, 그가 김재행에게 써준 『養虛堂記』의 전문을 인용하였다. 또, 엄성이 죽기 얼마 전에 김재행과 홍대용에게 보낸 시를 보이고, 그의 부음이 전해지자 “양허가 만리봉에 올라가 서쪽을 바라보며 통곡하니, 듣는 이들이 모두 비통해했다.[養虛登萬里峯，西望慟哭，聞者悲動.]”고 썼다. 엄성의 죽음에 관한 일화는 홍대용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되는 일이 많은데, 이덕무는 김재행의 통곡으로 마무리했다. 「양허당기」에 나타난 둘의 공감을 부각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고, 김재행의 ‘통곡’이 이들 교유의 마지막 장면으로 적합하다고 여겼을 듯도 하다. 가식 없는 슬픔의 유로

22) 엄성과 반정균이 조선 문인들과 교유한 일과 그들의 시를 소개한 부분은 여기서 끝난다. 이어지는 부분은 후일담이다.

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淸脾錄(四)』의 ‘李雨村’ 조에서는 이조원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유금과의 사김과 이별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별시를 인용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헤어질 때 (이조원이 탄소에게) 시를 지어 주었다. (...3수는 생략...)

추운 날 거센 바람이 사창을 치고	天寒風勁撲窓紗
가객과 마음 논하는데 차 끓는 소리 가늘다.	佳客論心細煮茶
해 저물어 돌아가려 하나 붙잡을 수 없으니	日暮懷歸留不得
누라서 밝은 달을 하늘 끝에 보내주려나.	誰將明月托天涯

그리고 또 그가 廣東 主考로 있을 적에 지은 <粵東皇華集>과 <松下看書小照>를 주었다. 아! 중국 사람이 벗과 사귀는 데 정이 진실하고 말이 도타운 것(情真語摯)이 이와 같다.²³⁾

찬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데 마음 맞는 벗과 붓을 잡고 가만히 이야기를 나눈다. 곁에는 보글보글 찻물 끓는 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려온다.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오늘의 이 오붓한 만남은 어쩌면 이생에서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사행의 일정이 정해져 있기에 붙잡아둘 수도 없고, 다만 저 밝은 달에 내 마음을 부쳐볼 뿐이다. 엄성과 반정군처럼 격렬한 슬픔을 토로한 것은 아니지만, 맑은 정취에 아련한 이별의 정을 담았다. 앞의 세 수에서는 유금의 풍모, 자신의 시가 해외에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뒷날의 기약을 읊었다. 이 시들에 대해 이덕무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이 벗을 사귄 때 마음이 진실하고 그 말(시어)이 도탑다고 평했다.

이덕무 자신도 이후 연행을 가서 중국 문인들과 교유하게 된다. 홍대용의 연행으로부터 13년 후다. 그 역시 중국인들과 이별하며 진정을 나누는 경험을 한다. 이덕무의 『入燕記』 1778년 6월 15일 기록에서 “재선(박제가)과 함께 축지당의 집에 가서 이별을 고하고, 다시 당원항의 집에 모였다. 이때 목장(李鼎元)과 부당(李驥元)도 와 있었다. 주인이 술상을 차리고 전별을 해주었다. 문을 나올 적에 각자 손을 잡고 애뜻하게 인사를 나누니, 차마 헤어지지 못하는 진정이 있었다.”²⁴⁾라고 하였다. 그냥 ‘別情’이 아니라 ‘차마 헤어지지 못하는 진정(忍別之真情)’이라고 하여 굳이 ‘眞’을 넣었다. 까짜로 꾸미거나 예의를 차린 것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와 차마 어찌할 수 없는 정이 드러난다는 뜻이다. 이덕무는 후일 이기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의 풍모를 회고하며 “매번 족하를 생각하면 키가 현질하고 눈이 빛나고 미목이 수려하며, 천진을 헤쳐서 보여주고 외양을 꾸미지 않으며(...)[每念足下頽然其長, 朗目秀眉, 披露天真, 不修邊幅, (...)]”라고 하였다. 그에게 보내는 시에서도 “현질한 이 중자어 / 담소하는 가운데 진정이 드러나네.[軒然李仲子, 談笑見情眞.]”²⁵⁾라고 하였다.

23) 『靑莊館全書』 卷35, <淸脾錄(四)>, 「李雨村」. “臨別贈以詩曰. (...) ‘天寒風勁撲窓紗, 佳客論心細煮茶. 日暮歸懷留不得, 惟將明月托天涯.’ 仍饒其廣東主考時所作<粵東皇華集>及<松下看書>小照. 嗟乎! 中國人之於友朋交際, 情真語摯, 有如此者.”

24) 『靑莊館全書』 卷66, <入燕記(下)>. “同在先往祝芷塘家叙別, 仍會唐駕港家. 時墨莊、覺塘亦來. 主人設酒餞飲. 及其出門, 各自握手, 緒語款款, 有不忍別之真情.”

이들과의 교유가 감동적이었던 것은 참다운 정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덕무는 청나라 문인들이 벗에 대한 진솔한 감정을 드러낸 것을 가리켜 진정이 발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 ‘진정’이란 ‘만남과 이별’이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표출된 솔직하고 진실한 감정을 가리킨다. 다음은 『이목구심서』에서 ‘진정’을 말한 대목이다.

진정의 발로는 고철이 못에서 활기차게 뛰고 봄의 죽순이 성년 듯 땅에서 솟아 나오는 것과 같다. 가짜로 꾸며낸 정은 매끈한 바위에 먹물을 발라놓은 것 같고 기름이 맑은 물에 뜬 것과 같다. 칠정 가운데 슬픔은 더욱 직접 드러나서 속이기 어려운 것이다. 슬픔이 심하면 곡을 하는 데 이르니, 그 지극한 정성은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진실한 울음은 끝수에 사무치며 거짓된 울음은 털끝에 떠 있게 되니, 만사의 진실과 거짓도 이를 미루어 헤아릴 수 있다.²⁶⁾

무릇 문장에서 슬프고도 진실한 정(惻怛眞情)은 반드시 碑文이나 誄文에서 볼 수 있다. 歐陽公의 「瀧岡阡表」에서는 先懿를 볼 수 있고, 伊川의 「明圖墓誌」와 우리나라 三淵의 「祭季弟卓爾文」에서는 우애를 볼 수 있으며, 李空同의 「左宜人墓誌」에서는 부부간의 의리를 볼 수 있다. 子姪의 죽음에 대한 글로는 昌黎의 「祭十二郎文」과 放翁의 「誌幼女」 및 우리나라 農巖의 「哭子崇謙」 두 편이 읽는 이를 흐느껴 울게 할 만하다. 또 師友간의 情誼가 나타난 글로는 長蘇의 「祭歐文忠公文」과 黃勉齋의 「朱子行狀」과 우리나라 李容齋의 「朴仲說誌」가 있고, 친하지 않은 사람을 곡한 것으로는 陽明의 「瘞旅文」 같은 것이 있다. 이러한 글들은 많이 구할 수 없는 것들로서 천년을 두고 사람의 마음을 고무시킬 수 있다.²⁷⁾

앞의 인용문에서는 ‘진정의 발로(眞情之發)’와 ‘꾸며낸 정(假情之飾)’의 차이에 대해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꼭 문학만을 지칭한 것은 아니며, 감정을 표출하는 행위 전부를 포괄하여 논한 것이다. 칠정 가운데서도 슬픔은 거짓으로 꾸미기 어려운 것이니, 그 울음을 보고 그 감정의 진위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 인용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진실한 슬픔의 감정이 문장으로 드러난 예를 거론하고 있다. 비문이나 뇌문 중에 그러한 글이 많다고 하며 역대의 명문을 나열하였다. 이덕무는 이처럼 슬픔이 진실하게 표현된 글은 많이 얻을 수 없다고 하였다. 죽음을 소재로 한 글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런 글들이 모두 진정을 잘 드러낸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열거한 작품들은 표현이나 형식의 측면에서 완성도가 높은 것들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덕무는 이 글들이 오랜 세월 두고두고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이유를 그 슬픔을 진실하게 표현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앞서 중국인들의 인물됨과 작품을 높이 평가하는 태도와 통한다. 이별의 순간에 (말과 행동, 그리고 문학 작품으로) 표출된 슬픔의 감정에서 진실한 마음을 포착한 것이다.

25) 『靑莊館全書』卷11, 《雅亭遺稿三》, 「有懷李冕塘【名驥元, 墨莊弟也. 公入燕時相識.】」.

26) 『靑莊館全書』卷49, 《耳目口心書(二)》. “眞情之發, 如古鐵活躍池, 春筍怒出土; 假情之飾, 如墨塗平滑石, 油泛清徹水. 七情之中, 哀尤直發難欺者也. 哀之甚至於哭, 則其至誠不可遏. 是故眞哭骨中透, 假哭毛上浮. 萬事之真假, 可類推也.”

27) 『靑莊館全書』卷51, 《耳目口心書(四)》. “凡文章惻怛眞情, 必於碑誄見之. 歐陽公瀧岡阡表, 先懿可見; 伊川之明道墓誌及我國三淵祭季弟卓爾文, 友愛可見; 李空同左宜人墓誌, 伉儷之義, 可見其悼. 子姪則昌黎之郎, 放翁之誌幼女及我國農巖之哭子崇謙二文, 嗚咽可涕. 其師友情誼, 則長蘇之祭歐文忠, 黃勉齋之朱子行狀, 我國李容齋之朴仲說誌. 哭等閑人則若陽明之瘞旅文, 不可多得, 可敲舞千古者也.”

2. 情의 자연스러운 流露와 言外之味の 詩境

한편 ‘情’의 자연스러운 流露는 시에 특별한 미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아래는 심계 이광석의 시에 대한 평이다.

병신년 가을, 내가 朴在先(朴齊家)과 함께 潮村의 일가 사람 和仲의 집에서 심계를 만나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 내가 먼저 돌아가게 되어 재선과 심계가 나를 냇가까지 전송해주면서 각각 시를 지었다. 심계의 시는 이러하다.

가을 하늘 드넓어 술 마시기 좋은데	秋空寥廓好含盃
떨치고 가는 높은 뜻, 무에 그리 바쁘오.	拂袂高情爲底催
시내 들머리에 햇살 맑고 바람 느긋해	晶日慢風溪口路
웃으며 누런 잎 부여잡고 돌아가길 망설이네.	笑攀黃葉且歸來

이별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아련하고, 슬퍼서 어찌할 바 모르는 뜻이 말 바깥에 넘쳐흐른다. 薑山(李書九)도 매우 칭찬하였다.²⁸⁾

‘心溪’ 항목의 일부로서, 이광석이 이덕무를 전송하며 쓴 시에 대한 품평이다. 이 시는 가을날의 높은 하늘, 햇살과 바람, 노랑게 물든 나뭇잎과 같은 소재로 청량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이별을 아쉬워하는 뜻을 은근히 담아냈다. 헤어짐의 슬픔을 말하는 대신 무엇이 그리 바빠 뿌리치고 떠나느냐고 묻고, 차마 돌아서지 못해 나뭇잎을 매만지며 주저하는 모습을 그렸다. 이덕무는 시 속에 담긴 애뜻한 석별의 정이 ‘언외에 넘친다’고 평했다. 슬픔을 ‘발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 속 화자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 마음을 짐작하게 했다. 그 때문에 더 여운이 남는다. 내용 면에서는 ‘진정’이 발로되었음을 지적한 것이고, 표현 면에서는 ‘言外之味’를 이룩했다는 평가이다. 시에 담긴 마음이 진실했기에 자연스럽게 풍부한 뜻이 말 밖으로 흘러넘치게 된 것이다. 이는 기교를 부려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청비록』의 다음 기사에서도 작품 평가의 기준으로 감정의 자연스러운 발로와 언외지미를 언급하고 있다.

魏際瑞는 자가 善伯이고 초명은 祥이니, 叔子 魏禧의 형이다. 희는 자가 氷叔이고,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름은 禮이고 자가 和公이다. 명나라가 망하자 형제가 寧都의 金精山 翠微峰에 숨어서 발을 갈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힘껏 古文辭를 지었다. 선백이 일찍이 연경에 유람을 갔다가 조선 사신을 만나서 시 두 편을 지었다.

들으니 동해의 사신이

遙聞東海使

28) 『靑莊館全書』卷33,《清脾錄(二)》,「心溪」.“歲丙申秋,余與朴在先,會心溪于潮村宗人和仲家,淹留數日.余將先歸,在先與心溪送我于溪頭,各賦詩.心溪詩曰:‘秋空寥廓好含盃,拂袂高情爲底催.晶日慢風溪口路,笑攀黃葉且歸來.’惜別戀戀,惆悵無聊之意,溢於言外.薑山極賞之.”

먼 길 돌아서 장안에 이르렀다 하네.	委曲到長安
북평로에 말을 세우니	駐馬北平路
燕都 사람들 다투어 구경하네.	都人相競看
彝倫은 은나라의 후예답고	彝倫殷子弟
禮讓은 한나라의 의관이로다.	禮讓漢衣冠
하룻저녁에 말 달려 동쪽으로 떠나면	一夕駟車去
차가운 압록강엔 바람 쓸쓸하겠지.	淒淒鴨綠寒

옛날 노 땅의 어른이	在昔魯中叟
구이에서 살고 싶다 말씀하셨지.	九夷云欲居
동방은 군자의 나라니	東方君子國
여러 오랑캐들과 참으로 다르다네.	洵如百蠻殊
三恪은 중국에 남아 있는데	三恪存諸夏
雙星은 사신 수레로 들어가누나.	雙星入使車
生菖가 도리어 옥과 같으니	生菖還似玉
嘉客의 뜻은 어떠한지.	嘉客意何如

속마음을 헤쳐서 드러내었으니, 개탄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은근하고 정성스러워 언외에 넘쳐흐른다.²⁹⁾

명말청초의 문인 魏禧(1624~1681)의 형인 魏際瑞의 시 두 편을 소개했다. 위희의 삼형제는 모두 문장으로 명성이 있었다. 위희는 청 聖祖 연간에 博學鴻詞로 천거되었으나 병을 핑계로 사절하였다고 한다. 형제가 모두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서 청나라에서 벼슬하지 않은 것이다. 『청비록』에는 위 시의 출전이 나와 있지 않는데, 韓致雍의 『海東釋史』에서는 『魏伯子集』이라고 출처를 밝히고 있다. 위 시는 조선 사신을 송별하며 그 威儀를 칭송한 시이다. 어떻게 보면 의례적인 칭찬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몇몇 구절에는 남다른 정이 실려 있기도 하다. 예컨대 제1수의 미련이 그러하다. 조선 사신이 하룻저녁에 수레를 몰아 떠나서 압록강 차가운 강물을 건너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깊은 정을 나누는 사이도 아니건만 짧은 조우와 긴 이별이 주는 감회가 담겨 있다.

독자는 이 시의 작자가 대명의리를 간직한 인물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작품에 담긴 뜻이 의미심장하다고 느끼게 된다. 이덕무는 중국인으로서 '동이'의 사신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을 꾸미지 않은 진정의 발로라고 평한 것으로 보인다. 명나라를 그리워하는 뜻이 직접적으로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조선 사신을 향한 연모의 말 사이사이에서 그러한 속내를 엿볼 수 있다. 위백자가 정말 그런 생각으로 시를 지었는지

29) 『靑莊館全書』卷32,《清脾錄(一)》,「魏伯子」.“魏際瑞字善伯,初名祥,叔子禧之兄也.禧字水叔,又有弟曰禮,字和公.明亡,兄弟隱於寧都金精山翠微峰,耕田教授,肆力爲古文辭.善伯嘗遊燕,遇朝鮮使者,有詩二篇.‘遙聞東海使,委曲到長安.駐馬北平路,都人相競看.彝倫殷子弟,禮讓漢衣冠.一夕駟車去,淒淒鴨綠寒.’”在昔魯中叟,九夷云欲居.東方君子國,洵如百蠻殊.三恪存諸夏,雙星入使車.生菖還似玉,嘉客意何如.’披露情曲,慨嘆艷羨,慙慙歎歎,洋溢言外.”

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조선인들의 시각으로 보자면 충분히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 그래서 ‘간곡한 마음을 드러내고 개탄하고 부러워하는 뜻이 은근하고 정성스러워서 언외에 흘러넘친다’고 평한 것이다. 앞서 이광석의 시와 마찬가지로, 정성스러운 마음이 시어의 바깥에 드러나서 그 의미가 더 심원해지고 있다.

여기에 인용한 『청비록』의 시평에서 이덕무는 언외지미의 함축성을 강조하고 있다. ‘언외지미’의 강조는 王士禎의 神韻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왕사정은 嚴羽의 『滄浪詩話』 「詩辨」에 나오는 “(…)言有盡而意無窮”이라는 문장을 『唐賢三昧集』 서문에 인용하였고, 이덕무는 이를 다시 자신의 『騷壇千金訣』의 맨 앞에 인용한 바 있다.³⁰⁾ 왕사정의 신운 개념은 분명한 정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엄우의 ‘以禪喻詩’와 ‘興趣’를 바탕으로 ‘言外之味’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왕사정이 신운으로 지목한 시들은 격조로 논하면 대개 ‘淸’이나 ‘遠’, 또는 ‘淸遠’으로 명명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경지가 주조를 이루는 작품들이다.³¹⁾ 이덕무는 스스로 기록하길 왕사정의 저술을 접한 뒤로 그의 문학과 시론에 크게 경도되어 그것을 주변에 전파하였다고 했다. 또, 그 자신의 시론 및 작품 창작에 왕사정의 관점을 적극 수용하였다. 그가 이서구를 ‘동방의 왕어양’으로 추대한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위 두 건 외에 『청비록』의 시평에서 언외지미를 말한 것으로는 다음의 예가 있다.

일찍이 관재(서상수)가 시인 몇 사람과 모여 ‘端陽佳節’이란 시를 지으면서, 분향하고 그림을 전시하고 箏을 불며 노래를 듣고서 각각 시를 썼는데, 관재의 시가 가장 훌륭하였다. 그가 악률을 잘 알아서 그 시가 말 밖의 운치言外之致를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시에,

영성한 발 틈으로 비치는 햇살 / 簾旭疎疎入
향불 연기 모락모락 피어오르네. / 香煙冉冉斜
섬세한 箏音에 은은한 노랫소리 / 箏纖歌窈窕
못다한 뜻은 석류꽃에 있네. / 餘意石榴花

하였는데, 재선(박계가)이, 선발하여 전할 만한 것이라고 하였다.³²⁾

위 기사에서는 ‘言外之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말 바깥의 운치라는 것은 말로는 전하지 못한 흥취를 가리킨다. 성긴 발 틈으로 비쳐드는 햇살과 느릿느릿한 향 연기가 마치 王維 시의 정경을 보여주는 듯하다. 가느다란 생황 소리를 묘사했는데, 시 속에 담긴 힘든 소리를 억지로 묘사하기보다는 그 ‘남은 뜻(餘意)’을 석류 화에 부친다고 하였다. 석류꽃의 화려한 빛깔이 시 속 정경에 문득 生彩를 더하며 음악 소리의 여운을 시각적 이미지로 전화하였다. 이덕무가 평한 대로 언외의 흥취가 물씬한 작품이다.³³⁾

30) 금지아, 「朝鮮 詩學上の 神韻」, 『열상고전연구』 17, 열상고전연구회, 2003, 293쪽.

31) 박종훈, 「조선 후기 王士禎 神韻 詩論 수용 양상- 漢詩 四家를 중심으로 -」, 『태동고전연구』 24,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8, 211~218쪽.

32) 『靑莊館全書』 卷34, 《淸脾錄三》, 「端陽佳節」. 「嘗於觀齋, 會韻友數人, 作端陽佳節. 焚香展畫, 調笙聽歌, 仍各有詩, 觀齋詩最爲工妙. 以其能曉樂律, 故詩現言外之致. 簾旭疎疎入, 香煙冉冉斜. 箏纖歌窈窕, 餘意石榴花.」在先亦嘗以爲可選可傳.”

33) 정대림, 앞의 책, 477~479쪽에서 이상 세 건의 기사를 들어서 이덕무가 ‘言外意의 함축의 기교’를 추구했다는 점을 언급한

앞에서 인용한 두 건의 시평은 그러한 언외지미를 情의 유로와 연결 지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덕무는 시인의 풍부한 정감을 중시하고 그러한 진실한 감정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작품을 좋은 시로 보았다. 그런 한편 표현방식의 측면에서는 그러한 감정을 ‘발산’하는 방식보다는 함축을 통해 무한한 여운을 남기는 방식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언외지미는 수식을 가하거나 기교를 더하는 방식으로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꾸며낸 감정이라면 결코 언외지미의 미적 경지를 이룰 수 없다. 오직 진실한 감정이 가득하여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감정이 말에 담기게 되고, 그럼으로써 독자는 시어의 바깥으로 넘쳐흐르는 풍부한 뜻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시에 담긴 진실한 감정이 언외지미의 함축성이라는 시적 표현의 완성도에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 즉 가식적인 감정이라면 아무리 기교를 부려도 그러한 여운과 감동을 줄 수 없다.

이덕무의 시론에서 ‘천진’과 ‘진실한 감정’을 중시하는 것은 公安派와 袁枚가 체계화한 性靈說에 바탕을 둔 견해이다. 함축미의 추구 역시 왕사정이 논한 신운과 통한다. 이덕무의 비평관이 중국과 문예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덕무는 기존의 문예사조를 수용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문학관을 펼쳤으며, 그에 따라 구체적인 비평 작업에서도 개성적인 면모가 종종 드러난다.³⁴⁾ 진실한 감정이라는 내용적 요소를 언외지미의 창출이라는 표현 면의 완성도와 연결 짓는 사유 역시 이덕무 비평에서 확인되는 독특한 시각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나가며

‘情’ 또는 ‘眞情’은 이덕무의 문학론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개념이다. 그는 문학 작품에 인간의 진실한 감정이 담겨야 한다고 보았으며, 그런 작품을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했다. 본고에서는 이덕무의 ‘정’ 개념이 구체적인 비평에서 어떤 양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그의 시 비평이 담긴 『청비록』을 대상으로 ‘情/眞情’ 개념이 사용된 맥락을 검토하고, 그와 관련한 비평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덕무는 심계 이광석의 시가 ‘淸眞’하다고 평하며 독서를 많이 하여 품격이 높아지면 정이 농후해진다는 것을 알겠다고 하였다. 이광석의 시에는 벗을 향한 애뜻한 마음이 가득하기에 그렇게 평한 것이다. 그는 이어서 ‘情勝’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시를 인용하고, 겉으로는 친절하면서 속으로는 남을 해치려는 자들을 경계하며 그들은 ‘조그마한 정도 없는 자들’이라고 비판한다. ‘情勝’한 사람이란 “사람 사랑하길 잃을까 겁내는 듯”하는 사람들이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은 그러한 정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덕무는 자신의 시 작품에서도 벗과의 ‘정’을 자주 이야기했다. 또한 여러 글에서 벗이란 서로 간에 진정을 나누는 사이, 천진을 드러내

바 있다.

34) 권정원, 앞의 논문(2005, 2016) 및 권정원, 「이덕무의 경륜과 인식과 수용」, 『퇴계학논집』 20, 영남퇴계학연구원, 2017 참조.

는 사이임을 말했다. 즉, 이덕무가 말하는 ‘정’은 ‘관계’에서의 ‘진실성’을 핵심으로 하는 개념인 것이다. 이러한 정은 사람 사이의 진솔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바탕으로서, 이러한 맥락에서 ‘정’은 곧 ‘진정’으로 표현된다.

『청비록』의 시평 가운데 이러한 ‘情/眞情’이 강조된 곳은 청나라 문인들에 대한 기사이다. 이덕무는 『청비록』에서 동시대 청나라 문인 엄성, 반정균, 육비, 이조원에 대해 각각 항목을 달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덕무는 『간정동필담』에 수록된 필담을 초록하여 엄성 등과 조선인들의 만남과 이별의 장면을 재구성했는데, 이들이 이별에 임하여 애통해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홍대용은 반정균의 과도한 감정 표출을 나무랐으나, 이덕무는 이를 진정의 발로로 여겼다. 이덕무는 이들 중국인들의 말과 행동, 또 만남과 이별을 다룬 시들에서 ‘진정’을 발견하였다. 그들의 시가 기록할 만하고 그 인물됨을 논할 가치가 있는 까닭은 그들의 말과 행동이 진정에서 나온 것이며 그 작품에 그러한 진정이 숨김없이 흘러나오기 때문인 것이다. 이처럼 『청비록』에서는 만남과 이별의 상황, 즉 ‘관계’ 속에서 진정이 드러나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이덕무는 『이목구심서』에서 진정의 발로와 거짓된 감정은 저절로 구분된다고 하였으며, 특히 슬픔은 가장 속이기 힘든 감정이라고 하였다. 또, 슬프고도 진실한 감정을 드러낸 역대의 비문과 뇌문을 열거하며 그러한 글들은 천년을 두고 사람들을 고무시킨다고 하였다. 중국 문인들에 대한 기사에서 이별 장면과 이별시를 부각한 것은 슬픔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감정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관계에서의 진실한 감정의 발로는 ‘言外之味’의 詩境을 창출하는 경지로도 이어진다. 이덕무는 이광석이 자신을 송별하며 지어 준 시에 대해 이별을 아쉬워하고 몹시 슬퍼하는 마음이 언외에 넘쳐흐른다고 평했다. 벗에 대한 애뜻한 마음이 함축미 있는 표현을 통해 은은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명말청초의 문인 위제서가 조선 사신을 보고 지은 시에 속마음이 곡진히 표현되었고 부러워하는 뜻이 정성스러워 언외에 넘쳐흐른다고 평했다. 작자가 대명리리를 간직한 인물이기에 그러한 마음이 시에 자연스럽게 실리게 되어 언외의 함축미를 구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언외지미는 기교를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획득할 수 없다. 오직 진실하고 가식 없는 마음이 가득하여 자기도 모르게 그 감정이 말에 담기게 되고, 그 뜻이 말 바깥으로 넘쳐나서 무한한 여운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情’ 개념과 관련하여 이덕무 시평의 특색이 나타나는 것은 이 부분이다. 즉, 진실한 감정의 유로가 자연스럽게 언외의 함축미를 창출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생각이다. 진정과 천진을 중시하는 관점은 공안파와 원매의 성령설에 바탕을 둔 것이며, 언외지미의 함축성을 추구하는 것은 왕사정의 신운설과 통하는 생각이다. 즉, 그의 문학론은 기존의 문예사조를 수용한 토대 위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운용 방식이나 비평의 관점은 독자적인 발상에 의한 것이 많으며, 본고의 분석 역시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된다.

본고는 ‘관계’에서의 ‘진실성’에 바탕을 둔 이덕무의 ‘정’ 개념에 대한 검토에서 출발하여 그의 시평에서 ‘정/진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비평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는 이덕무의 비평관, 나아가 백담시파를 비롯한 이 시기 문인들의 문학관을 이해하는 데도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향후 이에 관한 심화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李德懋, 『靑莊館全書』, <<한국문집총간>>(한국고전종합DB)
- 洪大容, 『湛軒書』, <<한국문집총간>>(한국고전종합DB)
- 강민구, 「『풍석고협집』을 통해 본 18세기 후반 문학 비평 연구(Ⅰ)」, 『동방한문학』 25, 동방한문학회, 2003.
- 강민구, 「『풍석고협집』을 통해 본 18세기 후반 문학 비평 연구(Ⅱ)」, 『동방한문학』 29, 동방한문학회, 2005.
- 권정원, 「李德懋의 公安派 批評理論의 受容樣相」, 『한문교육연구』 25, 한국한문교육학회, 2005.
- 권정원, 「이덕무 평점비평의 성립 배경에 대한 고찰」, 『동방한문학』 67, 동방한문학회, 2016.
- 권정원, 「이덕무의 경릉과 인식과 수용」, 『퇴계학논집』 20, 영남퇴계학연구원, 2017.
- 금동현, 「李德懋 文學理論의 思想的 土臺와 그 意味」, 『태동고전연구』 16,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9.
- 금지아, 「朝鮮 詩學上의 '神韻」, 『열상고전연구』 17, 열상고전연구회, 2003.
- 김 경, 「이덕무 산문비평연구: 『종북소선』, 풍석고협집소재 비평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 경, 「이덕무의 청성잡기 평어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33, 동양한문학회, 2011.
- 김기완, 「조선후기의 금·원대시 수용 연구-이덕무의 청비록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52, 대동한문학회, 2017.
- 김 영, 「『淸脾錄』의 詩批評樣相」, 송재소 외, 『李朝後期 漢文學의 再照明』, 창작과비평사, 1983.
- 김대중, 「『풍석고협집』의 평어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박수밀, 「소통의 맥락에서 본 조선후기 友道論의 양상」, 『동방한문학』 65, 동방한문학회, 2015.
- 박수천, 「『淸脾錄』의 詩話論的 考察」, 『석당논총』 18, 동아대학교부설 석당전통문화연구원, 1992.
- 박종훈, 「조선후기 王士禎 神韻 詩論 수용 양상-漢詩 四家를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24,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8.
- 박희병, 「『종북소선』의 평어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38, 민족문학사학회, 2008.
- 박희병, 『연암과 선굴당의 대화: 『종북소선』의 평점비평연구』, 돌베개, 2010.
- 부은아, 「이덕무 문학론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안대회, 「이덕무의 신시 창작론과 창작의 실제」, 재단법인 실시학사 편, 『청장관 이덕무 연구』, 학자원, 2019.
- 오수경, 「雅亭 李德懋의 詩論과 '朝鮮風'의 성격」, 『한국한문학연구』 9, 한국한문학회, 1987.
- 유재일, 『이덕무의 시문학 연구』, 태학사, 1998.
- 이수영, 「이덕무의 산문 비평의식 연구: 『풍석고협집』, 『종북소선』, 『엄계집』 소재 미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학당, 「李德懋의 文學 批評에 關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이철희, 「18세기 한중 지식인 교유와 天涯知己의 조건 - 洪大容의 『乾淨洞筆談』과 嚴誠의 『日下題襟集』의 대비적 고찰을 중심으로 -」, 『대동문화연구』 8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 임형택, 「朴燕巖의 友情論과 倫理意識의 向方」, 『한국한문학연구』 1, 한국한문학회, 1976.
- 전영실, 「李德懋 『淸脾錄』에 나타난 中國詩와 詩人에 대한 批評樣相 考察」, 『한중언어문화연구』 25, 한국중국어언어문화연구회, 2011.
- 정대림, 『한국고전비평사-조선후기편-』, 태학사, 2001.
- 정숙인, 「『淸脾錄』을 통해 본 이덕무의 批評樣相」, 『어문연구』 27: 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9.
- 최옥현, 「雅亭 李德懋 『淸脾錄』의 평어 연구」, 『인문사회과학논문집』 36,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5.

* 이 논문은 2022년 5월 27일에 투고되어,
2022년 6월 21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2년 7월 7일까지 심사하고,
2022년 7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

The Connotations in the Concept of ‘Chǒng (情) / Chinjǒng (眞情)’ and Criticisms in *Ch’ǒngbirok* (清脾錄)

Jang, Jinyoup*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xts in which the concept of ‘chǒng’ (情, affection) and ‘chinjǒng’ (眞情, true affection) was utilized in Yi Tǒkmu (李德懋)’s *Ch’ǒngbirok* (清脾錄, Records of Pure Energy Inside), and the criticisms in regards to the said concept.

First, the connotations embodied in the concept of chǒng as appears in *Ch’ǒngbirok* is appraised. Yi Tǒkmu evaluated the poetry of Yi Kwangsǒk as ‘ch’ǒngjin (清真, pure and sincere)’, remarking that his chǒng has become very robust from his high level of sophistication, which comes from him being well-read. Yi Kwangsǒk’s visible affection for his friend in his poetry has inspired such remark. Following this, Yi Tǒkmu quoted his own poetry which expresses his longing for a ‘ch’ǒngsǔng (情勝, warmhearted)’ individual and proceeded to denounce those who are kind on the outside, but actively malicious on the inside as ‘ones without a semblance of chǒng’. *Ch’ǒngsǔng* individual refers to those who have an affectionate heart for friends; insincere individuals possess no chǒng for others. In short, sincerity in a relationship is at the core of Yi Tǒkmu’s understanding of chǒng. As a foundation which allows an honest relationship to form between two people, in this context chǒng is conceptually equal to chinjǒng.

Next analyzed is the ways in which the concept of chǒng and chinjǒng is employed in poetry criticisms of *Ch’ǒngbirok*. Yi Tǒkmu introduces the exchanges between Chinese literati – Yan Cheng (嚴誠), Pan Ting Jun (潘庭筠), Lu Fei (陸飛), Li Tiao Yuan (李調元) – and Chosǒn literati. He provided an especially detailed picture of how they lamented upon their parting, and realized ‘chinjǒng’ here. Also, Yi Tǒkmu argued in *Imokkushimsǒ* (耳目口心書, Book of What I Have Heard, Seen, Said, and Felt) that manifestation of chinjǒng and fabricated emotions are distinguishable by nature, and that sadness is the most hard to fabricate among seven emotions (七情). It follows this that he places special emphasis on the chǒng of parting found in writings about Chinese literati. Meanwhile, it is the manifestation of chinjǒng in relationships which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hinese Classics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elevates the level of poetry, producing sensation beyond words (言外之味). When full, sincere and unpretending heart gets itself embodied in the words; and when such mind overflows the words, it leaves a ring that lasts eternally. This idea that full expression of *chinjǒng* naturally leads to implicative poetic words is characteristic of Yi Tǒkmu's poetry criticism.

The perspective which emphasizes *chinjǒng* and *ch'ǒnjin* (天真, true nature) is based on the theory of spiritual expression (性靈說) by Gong'an School (公安派) and Yuan Mei (袁枚), while the pursuit of implicative language of sensation beyond words coincides with the theory of spirited charm (神韻說) presented by Wang Shi Zhen (王士禛). However, Yi Tǒkmu's specific mode of their application is very original. Analysis presented in this paper is one example which exemplifies such quality.

[Keywords] Yi Tǒkmu (李德懋), *Ch'ǒngbirok* (清脾錄), criticism, affection (情), true affection (真情), sensation beyond words (言外之味)